

'n번방 척결' 경찰 특수본, 활동 마무리...3575명 검거

경찰 특수본 운영 종료...약 9개월간 활동 2807건, 3575명 검거...245명은 구속 송치 피해자는 10대 이하 60%...보호·지원 조치

n번방 등 성착취물 사건을 계기로 출범된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운영이 약 9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특수본은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문제에서 시작해 구매·소지자까지 관련 수사 범위를 확대, 모두 3575명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본 운영 기간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범은 2807건이며, 검거자 가운데 245명은 구속 송치가 이뤄졌다.

물' 관련 사건은 1891건이었다. 제작·운영 429명, 판매·유통 509명, 구매·소지 1854명 등이 검거됐다.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과 관련해서는 운영 5명, 제작 2명, 판매·유통 2명, 구매·소지 202명 등 222명이 붙잡혔다. 문형욱(24)이 주도한 n번방 관련자는 운영 1명, 제작 6명, 판매·유통 8명, 구매·소지 789명 등 804명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외한 불법 촬영물, 불법합성물 등 사안으로는 765명 검거됐다. 제작·운영 82명, 판매·유통 661명, 구매·소지 21명 등으로 집계된다.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는 절반 이상이 10~20대였다. 전체 3573명 가운데 20대는 1448명으로 약 49%에 이르렀다. 10대 이하는 1090명으로 19%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30대 698명, 40대 245명, 50대 이상 94명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영상물 등

을 구매,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피의자 상당수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지원을 병행했다. 담당 동성 경찰관을 1대 1로 지정해 대응하게 했고 신변보호, 영상삭제 지원·연계, 해바라기센터·상담소 연계 등을 추진했다고 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1154명으로 집계된다. 10대 이하가 667명으로 전체 60.7%를 차지했다. 이어 20대가 294명으로 26.8% 비중이었다. 이외 30대 74명, 40대 45명, 50대 이상 19명 등이었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신원이 특정된 1094명을 대상으로 4387회의 보호·지원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 영상물 1133건에 대한 삭제, 차단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특수본 종료 이후에도 지역 단위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최적화된 수사 환경과 피해 보호 제도를 보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봉우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333명 추가 인정...총 4114명

780억 지급...특별유족조위금 상향차액 포함해 1015억



지난 2018년 6월 1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333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8~29일 양일간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심사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종전 범상 신청자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의 과거 접수 순서로 540명을 심사했으며, 이 중 333명의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지난 9월25일 개정안 시행 이후 3개월 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된 인원은 총 1191명이 됐다. 앞서 19차 300명, 20차 264명, 21차 294

명을 각각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4114명으로 늘었다. 중복 지원자 42명을 뺀 숫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114명, 긴급의료지원 48명, 진찰·검사 지원 40명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의료비,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지난 29일 기준 약 780억원이다. 지급이 확정된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차액 잔액 235억원을 포함하면 약 1015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급여 항목 신설, 특별유족조위금(기준 약 4000만→1억원) 및 요양생활수당(약 1.2배 증액) 상향, 호흡기계 외 기타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내년 피해 지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동취재본부

"박원순 피해자 고통만 커져...수사 공개해야"

"은폐 행위, 그 자체 범죄...국민 심판 있을것"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규명 없이 약 5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하면서 여성단체가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관계자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박원순 성추행을 비호하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지난 7월16일 46명의 전담인력을 구성해 170여일 동안 가동한 태스크포스(TF)의 결과는 허무했다"며 "피해자가 고발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힐 수 있는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근거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진실을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불기소 송치 의견만을 밝혀 피해자를 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2차 가해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포렌식 수사도, 사망 동기도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라는 이름 앞에선 진실이 짓밟힌 채 묵여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실을 경찰만 알면 피해자는 사회적 사자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의 이번 발표는 사망한 박 전 시장과 2차 가해의 근원지인 서울시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경찰은 지금 당장 피해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을 당장 공개하라"며 "경찰의 진실 은폐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이고,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경찰은 박 전 시장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추행 피소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 불기소(공소권 없음) ▲성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2차 가해 고소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사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관련은 각하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순천·광양 '코로나19' 1명씩 확진...정밀역학조사 진행

필리핀 해외입국자 1명도 양성 판정

전남 순천과 광양에서 30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순천시 코로나19대책본부에 따

르면 타지역 근무자인 A 씨는 순천 190번(전남 556번) 확진자로 분류돼 공개할 순천 내 동선은 없는 상태며 접촉자나 동선 확인을 위한 정밀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씨는 28일 보성군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일부 확인돼 보성군에도 통보됐다. 또 광양에 거주하는 B 씨가 자가 격리 중 확진돼 광양 78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B 씨는 가족 중 한 명인 광양 66번(전남 498번)과 접촉하면

서 19일부터 격리상태에서 공개할 동선은 없다. 이날 오전 필리핀에서 나주로 온 해외입국자가 양성판정을 받고 전남 555번으로 분류됐다. 전남 555번은 강진의료원에 입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